

■ 특집1 - “일상 속의 제노포비아” ■

19세기 미국의 나병¹⁾과 이민자: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이민자와 나병 경험

신지혜

I. 서론

개인의 이동이 증가하고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지금, 질병의 매개자는 이제 특정 지역의 특정 인종만이 아니다. 국내든 국외든 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질병의 매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 특히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이민자의 경우, 여전히 차별을 벗어나기 힘들다. 2014년 한국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 여행자, 학생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입국을 금지당하거나 차별받았다.²⁾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아시아라는 지역을 한데 묶어 타자화하는 현상이 전세계에서 나타났다. 질병 앞에서 만인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4058286)

- 1) 나병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은 용어로 현재는 나균을 발견한 한센의 이름을 딴 한센병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영어의 leprosy를 나병으로, leper를 나환자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 2)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병 사례가 없었지만 이들의 한국 입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2014년 8월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차 차세대 여성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대회’였다. 대회에는 아프리카 9개국의 학생 28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에볼라 발병 지역 출신이 없었으나 아프리카인 전체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와 동일시하는 통에 대회를 취소하라는 청원이 쇄도했다. 「덕성여대 “에볼라 발병국 참가자 없다”... 세계대회 개최」, 『뉴시스』 (2014년 8월 4일).

평등하다지만, 질병의 이해와 대처 방식은 인종적 편견과 무관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해도³⁾ 이와 같은 차별적인 행태가 나타났을 것인가?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유사한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었다면, 이것이 유럽의 백인에 대한 전세계적 반감으로 확대되었을 것인가?

질병의 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이동성의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내에서 지역감염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해도, 해외에서 계속되는 유입으로 인한 전파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민권을 가진 해외 거주자가 귀국하는 것으로도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아무리 법적 지위가 보장되었어도 시민이 아닌 자가 입국하는 경우 전파의 위협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여기서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이민자가 실제로 질병의 전파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보다, 이민자의 인종이나 국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편견이 특정 질병의 이해와 이민자의 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이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 20세기 초 아일랜드 출신의 메리 맬런(Mallon)과 장티푸스,⁴⁾ 유대인과 연계된 전염성 강한 안질환 트라코마⁵⁾ 등을 제외하고 미국 역사에서 유럽에서 유래되거나 유럽의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와 연계된 전염병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아시아인, 특히 중국인과 필리핀인 이민자는 트라코마 뿐만 아니라 십이지장충병,

3) 브라운 대학의 스탠리 애런슨에 따르면, 1974년 이래로 중국으로부터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human pathogen) 29가지가 퍼져나갔다고 한다. 전부 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개중에는 사라졌다 재등장한 병원균도 있었다. 애런슨은 중국인 상당수가 가축과 공간적 거리 없이 지내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인간, 조류, 돼지 독감 유전자가 생물학적으로 섞여 앞으로 중국이 새로운 전염병 바이러스의 발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그는 여러 감염병에 대한 미국의 인종차별주의적 태도를 지적한다. Stanley M. Aronson, "Racism and the Threat of Influenza", *Medicine and Health Rhode Island*, 93-1(2010), p. 3.

4) 낸시 톰스, 이춘입 역, 『세균의 복음』 (서울: 푸른역사, 2019); Alan Kraut,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5) Howard Markel, "'The Eyes Have It': Trachoma, the Perception of Disease,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and the American Jewish Immigration Experience, 1897-1924",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73-3(2000).

콜레라, 황열병, 나병 등의 열대성 질병을 퍼뜨린다 하여 배척당했다.⁶⁾ 사실 트라코마는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던 질환이었고, 십이지장충병 역시 미국 남부의 가난한 백인 사이에 퍼져 있던 질병이었다.⁷⁾ 그러나 외부에서 유입된 질병이 미국 사회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믿음은 힘을 발휘했고, 비백인과 연계될 때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2020년의 코로나19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어느 사회에서나 질병은 외부의 세력, 특히 이민과 연계되었고, 이에 따라 질병의 근원인 이민자에 대한 공포가 두드러졌다. 나병도 예외가 아니었다. 19세기 미국, 캐나다,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지에서는 이민자가 나병의 전파자 또는 보균자로 지목되었다.⁸⁾ 수천년 동안 나병이 명맥을 이어왔던 유럽에서도 이 시기가 되면 나병을 외국병으로 보게 되었다.⁹⁾ 역사학자인 재커리 거소(Gussow)와 조지 트레이시(Tracy)는 당시 5대 유행병인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황열병, 천연두가 외국인을 통해 유럽과 미국에 유입되었고, 이처럼 전세계적 유행병의 위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구에서 나병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¹⁰⁾ 그러나 19세기 미국 사회의 나병을 연구하는 것은 그동안 이민자와 연계되었던 여타 질병 연구와

-
- 6) Nayan Shah, *Contagious Divides: Epidemics and Race in San Francisco's Chinatow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Brittany Kula and Joan L. Robinson, "Mistreatment of Immigrants: The History of Leprosy in Canada", *Leprosy Review*, 84(2013).
 - 7) Matt Wray, *Not Quite White: White Trash and the Boundaries of Whitenes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 8) Shah, *Contagious Divides; Kraut,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 9) 영국의 의사인 룩슨 루스에 따르면, 유럽에 나병이 유입된 것은 로마 제국 시기였다. 이미 8~9세기경부터 나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10~13세기에 걸쳐 거의 전 유럽에 유사한 기관이 자리를 잡았다. 루스는 십자군 전쟁 때 동방(East)에서 나병이 유입되었다는 주장에는 의문을 표했다. 이미 훨씬 전부터 영국에 나환자를 위한 병원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또한 루스는 유럽에서 나병이 사라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격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Robson Roose, "Lepers and Leprosy in Norway", *Fortnightly Review*, 52(December 1889).
 - 10) Zachary Gussow and George S. Tracy, "Stigma and the Leprosy Phenomenon: The Social History of a Disease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44-5(1970), p. 440.

사뭇 다르다. 나병을 가져온 ‘외부인’이 우리가 흔히 질병과 연관지은 유럽 외부의 비백인이 아니라, 전형적인 백인이라 할 수 있는 스칸디나비아 출신 이민자였기 때문이다.¹¹⁾ 이 중 노르웨이는 미국으로 이민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병 발병 지역으로 잘 알려졌다. 오늘날 나병을 칭하는 한센병이 1873년에 나균(*Mycobacterium leprae*)을 발견한 노르웨이의 의사 게르하르 한센(*Gerhard Armauer Hansen*)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점 또한 나병의 역사에서 노르웨이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한편, 노르웨이와 나병은 대중뿐만 아니라 학계의 관심에서도 멀어진 지 오래이다. 미국의 스칸디나비아 이민사 연구에는 나병이 등장하지 않으며,¹²⁾ 이민과 의료, 질병, 심지어는 나병을 다루는 연구에서도 노르웨이는 물론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본 글은 19세기 미국에서 나병이 인식된 과정을 통해 나병의 역사와 미국의 이민·인종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북유럽의 백인이라도 앵글로 색슨과 동일한 지위를 쉽게 얻을 수 없었으며, 질병을 옮기는 외부인으로서 정부의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출신, 특히 노르웨이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되고, 다른 이민자 집단의 나병이 부각되면서 나병의 스티그마는 점차 비백인 타자로 옮겨갔다. 물론 이 연구를 통해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의 고통을 확대 해석하거나, 이들의 배척의 역사가 비백인 이민자나 소수 집단이 겪은 고난에 비견될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11) 이 글은 노르웨이 이민자에 초점을 맞추지만 스칸디나비아 이민자 전체를 포괄한다. 노르웨이 이민자의 정체성이 스칸디나비아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반화가 가능하다. Erika K. Jackson, *Scandinavians in Chicago: The Origins of White Privilege in Modern America*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8).

12) *Norway to America*는 이민자 사회의 생활환경과 질병을 설명하면서 나병을 딱 한 번 언급한다. “오랫동안 결핵이 미국의 노르웨이인 거주 지역에 널리 퍼졌다. 나병과 마찬가지로, 이민자가 결핵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나 나병은 노르웨이에서 감염되어 온 사람들이 죽자 사라졌는데, 이는 생활환경과 위생이 나아졌다는 신호로,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나병이 전염되기 때문이었다.” Ingrid Semmingsen and Einar Ingvald Haugen, *Norway to America: A History of the Migr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0), p. 69.

것은 아니다.¹³⁾ 본 글은 19세기 중후반 미국 사회에서 나병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스칸디나비아 이민자 중 노르웨이 출신과 이들의 나병 사례가 어떤 식으로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공중보건 법규와 정책 수행을 통해 나병의 통제가 어떻게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에서 비백인 이민자로 전환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19세기 중반 미국에 도착한 노르웨이 이민자에 초점을 맞춰 이민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당시 미국 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이해와 이민자의 동화 과정을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II. 나병의 역사와 미국의 나환자

나병과 여타 전염병을 구별하는 단어는 ‘스티그마’이다.¹⁴⁾ 오늘날 한센병으로 불리는 나병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여년의 잠복기를 가지며, 나환자의 호흡기 비말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다. 피부의 괴사 같은 심각한 증상은 나균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이거나 합병증에 의해 야기된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나병이 유전된다는 주장이 대세였지만 세균설이 발전하고 나균이 발견되면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나균은 쉽게 전염되지 않아 환자의 수가 많지 않았으나, 일단 발병하면 예후가 좋지 않고 역사적, 종교적으로도 오랫동안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었던 질병이라 문제가 되었다.¹⁵⁾ 1889년 영국의 의사 룩슨 루스(Roose)는 콜레라와 나병을 비교하며, 콜레라를 “맞서 싸워야 할 적”으로, 나병은 “참아내야 할 악”으로 보았다. 콜레라는 나병보다 빨리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이지만 결국 사라지는 반면, 나병은 희생자를 고르면 몇 년이고 달라붙어 죽음이

13)본 글에서는 ‘백인성’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했지만, 아일랜드, 유대인, 남동유럽 이민자의 백인성 연구를 통해서도 이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14)Gussow and Tracy, “Stigma and the Leprosy Phenomenon”, p. 425.

15)20세기 초 미국에서는 소설 『벤허』에서 묘사된 나병이 대표적인 이미지로 대중에게 영향을 미쳤다. Michelle Therese Moran, *Colonizing Leprosy: Imperialism and the Politics of Public Health in the United States*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p. 36.

찾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¹⁶⁾ 미셸 푸코 역시 나병을 페스트와 구분하여, 개인화된 훈육을 대표한 페스트 환자와 달리 중세의 나환자는 사회적 추방과 거리두기를 통해 완전히 배제된 타자였다고 설명한다.¹⁷⁾ 그러나 푸코가 고찰한 중세시대의 나병은 19세기에 다시금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미국 사회에서는 나환자의 주거지가 산발적인 데다 이민자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들을 격리하고 통제하는 게 과거만큼 쉽지 않았다. 결핵, 정신질환과 더불어 해당 질병만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원이나 전문 병원이 있었던 몇 안 되는 질병이었다는 점도 나병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¹⁸⁾ 흥미로운 점은 환자의 수에 비해 나병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지나칠 정도였다는 것이다. 론 아문손(Amundson)과 아키라 러들-미야모토(Ruddle-Miyamoto)는 배척의 가장 큰 이유로 ‘못생겼다’는 점을 들었다. 즉, 나환자의 외양이 눈에 거슬린다는 것 외에는 사실 나병을 이렇게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설명이다.¹⁹⁾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나병이 크게 확산된 적이 없고, 유럽에서도 16세기 이후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나병은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었다.²⁰⁾ 이런 상황에서 1860년대와 70년대에 나병이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한 것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였다. 거소와 트레이시에 따르면, 첫째는 1860년대 하와이의 나병 창궐로, 중국인 노동자가 나병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16)Roose, “Lepers and Leprosy in Norway”, p. 846.

17)Michele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New York: Vintage, 1998).

18)“The Horrors of Leprosy”, Placer Herald (April 7, 1883). 나병원인 라자레토는 감옥이나 정신병원과 종종 비유되었다. 캐나다 뉴브런즈윅의 라자레토를 방문한 저자는 이곳이 감옥이나 마찬가지로, 정신병원 병동도 여기에 비할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19)Ron Amundson and Akira Oakaokalani Ruddle-Miyamoto, “A Whole-some Horror: The Stigmas of Leprosy in 19th Century Hawaii”,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30-3/4(2010). <https://dsq-sds.org/article/view/1270/1300>.

20)Gussow and Tracy, “Stigma”, p. 427. 영국의 모델 맥켄지(Mackenzie)에 따르면, 예전 유럽 국가는 나병이 전염된다고 믿어 철저한 격리를 지향했으나, 19세기 들어 나병이 유전병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 되면서 오히려 나병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그는 노르웨이의 한센이 설파한 나병의 전염설을 적극 지지했다. Morell Mackenzie, “The Dreadful Revival of Leprosy”, *The Nineteenth Century; a Monthly Review* (December 1889).

나병의 유전설이 도전을 받았다.²¹⁾ 둘째는 1873년 한센의 나균 발견, 셋째는 하와이에서 의료 봉사를 했던 벨기에 출신의 다미앵(Damien) 신부가 1870년대 나병에 걸려 결국 사망한 사건이었다.²²⁾ 당시 미국이 하와이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합병도 하지 않은 때에 하와이의 나병 발발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한눈에 알기 어렵다. 이것이 본 글이 거쏘와 트레이시가 설명한 이 세 가지 사건 외에도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미국의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와 나병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본래 미국에서는 나병이 서아프리카의 노예무역을 통해, 그리고 루이지애나의 프랑스 출신 정착민에 의해 퍼졌다고 알려져 있었다.²³⁾ 남부의 특정 지역에 나병이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미국 사회는 나환자의 존재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19세기에도 나병 발발 지역은 인도, 서인도제도, 아이슬란드, 중국, 노르웨이 해안, 하와이(당시 샌드위치 섬), 남아프리카 등으로, 미국은 안전지대에 가까웠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미네소타주를 비롯해 아이오와, 위스컨신주 등에 거주하는 스칸디나비아 이민자 중 나환자가 있다는 보고가 널리 알려지면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다.²⁴⁾ 이제 나병은 내부인과 외부인을 판가름 짓고 이민정책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하는 질병이 되었다.

그러나 나병을 다루는 미국 이민사와 의료사의 학제간 연구는 많지 않다. 미국의 나병 연구에서는 하와이 및 미 군정 하의 필리핀에서 나병의 치료와 나환자의 격리 등을 다룬 글이 주가 되었다.²⁵⁾ 이 외에도

21) 샌드위치 섬으로 알려진 하와이에서 최초로 나환자의 집단 격리가 실행되었다. 하와이의 사례는 식민지를 통한 나병의 전파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22) Gussow and Tracy, “Stigma and the Leprosy Phenomenon”; 제니퍼 라이트, 이규원 역, 『세계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서울: 산처럼, 2020).

23) Victor G. Heiser, “The Future of Leprosy”, *North American Review* (June 1, 1925), p. 681.

24) The Norwegian-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NAHA) online: https://www.naha.stolaf.edu/pubs/nas/volume26/vol26_2.htm. 19세기 말이 되면 나병의 유전성을 반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센의 나균 발견을 통해 나병이 전염되며 격리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물론 나균 발견 이후에도 유전이나 자연발생설을 신봉하는 학자 및 대중이 많았다.

25) Amundson and Ruddle-Miyamoto, “Wholesome Horror”; Warwick An-

제국주의에 초점을 맞춰 나병을 분석한 미셸 모런(Moran)의 연구가 있으며, 나환자 요양소를 중심으로 하여 하와이의 몰로카이와 1910년대에 설립된 루이지애나주 카빌의 국립 나병원을 다루는 연구가 몇 편 출판되었다.²⁶⁾ 미 서부의 중국인 이민자와 나병도 관심을 받았지만, 이민과 나병의 연관성 자체보다는 반이민 정서와 인종차별 연구가 주를 이뤘다.²⁷⁾ 거의 모든 질병의 원흉으로 매도당한 중국인 외에 다른 이민자를 나병과 연결지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스칸디나비아, 특히 노르웨이 이민자 사이에서 나병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루는 역사서 역시 나병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노르웨이인의 나병이 공포와 우려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단지 이들이 ‘혐오스럽다’고 여겨지지 않아서라는 간단한 설명도 있지만,²⁸⁾ 미국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으로 시선을 옮긴다면,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와 나병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19세기에 나병이 발생했던 지역은 인도, 서인도제도, 아이슬란드, 중국, 노르웨이 해안, 하와이(당시 샌드위치 섬), 남아프리카 등으로, 미국은 나병의 안전지대에 가까웠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출신 나환자를 시작으로, 1870년대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derson, *Colonial Pathologies: American Tropical Medicine, Race, and Hygiene in the Philippine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6), pp. 161-75; Maria Serena I. Diokno, ed., *Hidden Lives, Concealed Narratives: A History of Leprosy in the Philippines* (Manila: National Historical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2016); Kerri A. Inglis, Ma'i Lepera, *Disease and Displacement in Nineteenth-Century Hawai'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3).

26) Michelle Therese Moran, *Colonizing Leprosy: Imperialism and the Politics of Public Health in the United States*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27) Shah, *Contagious Divides*; Hajime Saito and Janet E. Frantz, "History of Hansen's Disease Contro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Japanese Journal of Leprosy*, 74(2005).

28) 거쑈(Gussaw)의 설명으로 다음에서재인용. Shubhada S. Pandya, "The First International Leprosy Conference, Berlin, 1897: The Politics of Segregation", *História, Ciências, Saúde-Manguinhos*, 10-1(2003), <https://doi.org/10.1590/S0104-59702003000400008>.

중국인 이민자가 나병 확산을 받아 대혼란이 일어났다.²⁹⁾ 1898년 이후, 하와이와 필리핀이 합병되면서 새로운 영토로부터 나병이 유입되어 미전역에 퍼질 것이라는 공포가 커져만 갔다. 나병은 신체적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계속해서 배척을 받은 질병이므로, 특정 집단에서 나환자의 발생률이 높다면 그 집단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역사가 긴 나병의 스티그마를 고려할 때, 미국 사회가 스칸디나비아, 특히 노르웨이 이민자에 의혹을 품게 된 것은 어찌면 당연했다. 그러나 중국인 이민자를 비롯한 비백인 타자의 경우와 달리, 중서부 스칸디나비아 이민자를 향한 비난과 차별은 지속되지 않았다. 나병을 전파한다 해도 스칸디나비아인이 미국에 적응하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으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나병이 처음 알려진 때가 미국이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꾀하며 전세계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전이라는 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오늘날에는 거의 잊혀졌지만 스칸디나비아 출신 이민자와 나병의 관계는 미국의 질병 통제, 이민문제, 인종관계를 두루 반영한다. 스칸디나비아 이민자 중 나환자의 존재는 외부인에 대한 의심을 키웠고 이민 통제와 질병의 이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이상이었던 청결함을 받아들이는 등 미국 사회에 동화되면서, 그리고 중국인을 비롯한 비백인 나환자의 문제가 이들과 대비되면서,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의 나병을 향한 비난과 차별은 누그러들었다. 다음 장에서는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이민자와 나병을 둘러싼 담론을 통해 어떻게 이들 이민자가 나병의 스티그마를 지워낼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Ⅲ.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이민자와 나병

노르웨이인의 미국 이주는 1825년 범선 레스터레이션(Restoration) 호에 승선한 52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36년 이후에는 한동안 매년 수백 명 정도만이 미국으로 향했으나, 1843년부터는 공황의 여파로 천

29)Kraut, *Silent Travelers*, pp. 82-83, p. 202.

명 이상이 매년 노르웨이를 등졌다.³⁰⁾ 많은 이들이 운하의 발달로 정착이 가능해진 중서부에 자리를 잡았다. 1860년대에는 미국의 사업가가 중서부의 땅을 개척할 이민자를 모집하기 위해 스칸디나비아 국가로 눈을 돌렸고, 이에 따라 이민자 수가 더 늘어났다. 초기 이민자들은 미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가난에서 비롯된 비참한 생활환경이 이들의 건강과 동화 과정을 위협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스칸디나비아인을 “소박한 시골 사람들로 문명화되지 않았다.”고 여겼으며 앵글로-색슨과는 다른 인종으로 간주했다.³¹⁾ 질병 역시 이들의 정착을 위기에 빠뜨렸다. 오랜 이주 과정에서 비롯된 장티푸스나 이질은 물론, 식수 오염, 콜레라, 심지어는 말라리아까지도 이민자 사회에서 위세를 떨쳤다. 결핵 또한 흔하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나병이 문제가 되었다.³²⁾

16세기 이후로 유럽에서 사라졌던 나병은 19세기 들어 노르웨이의 특정 지역과 아이슬란드에서 다시 등장했다. 이 중 노르웨이 서부에서 남부에 이르는 해안가가 나병의 진원지로 알려졌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미국 중서부에 정착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³³⁾ 1852년 『뉴욕 일간 타임스(New York Daily Times)』는 노르웨이의 나병 현황을 보여주는 제임스 리치먼드 목사의 편지를 실었다. 그는 노르웨이 서부 해안가에 나병이 만연하며, 이 지역의 노르웨이인이 점점 더 많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나병 전문가 또한 이민자 중에 나환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당대의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리치먼드는 나병이 절대로 전염되지는 않지만 유전병이기 때문에 이민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미국에 쉽게 퍼져 나갈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민자 중 나환자가 있다면 이들에게 병원에 입원하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민자가 많이 도착하는 주나 시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⁴⁾ 1852년 당시 리치먼드의 편지는

30)Semmingen and Haugen, *Norway to America*, p. 11.

31)Jackson, *Scandinavians*, p. 24.

32)Semmingen and Haugen, *Norway to America*, pp. 67-69.

33)United State Congressional Serial Set. 1169 (1862/63), Annual Report of Foreign Commerce, pp. 309-310.

34)“Norwegian Leprosy”, *New York Daily Times* (Dec. 27, 1852). From the

예측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1850~60년대 미국의 노르웨이 이민자에게 나병이 발견되어 공중보건 문제가 되었으며, 19세기 말까지도 미국 사회는 노르웨이 이민자를 나병의 전파 집단 중 하나로 보았다.³⁵⁾ 1880년대에는 나병을 막으려면 모든 노르웨이 이민자를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나타났다.³⁶⁾ 문제는 여전히 각 주의 보건 위원회(State Board of Health)가 주 내의 나환자 유무를 확인하고 새로운 나환자를 등록하여 이들의 관리 및 격리를 맡았다는 것이다. 19세기 말 연방이민국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민에 있어서 연방 정부와 공중보건국의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나환자의 중앙 통제가 원활하지 않았고, 송환이나 추방에도 일관된 정부 방침이 없었다. 나병은 잠복기가 다른 질병보다 길고 일정치 않아 국경에서 제때 찾아내기도 어려웠다.³⁷⁾ 무엇보다도 나병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드물었다.³⁸⁾ 따라서 오랫동안 매독과 나병이 혼동되었으며(둘 다 도덕성과 연관되었고, 악화되면 코가 떨어진다), 발병 초기의 상태는 단순한

Evangelic Catholic; Magnus Vollset, "Globalizing Leprosy: A Trans-national History of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Medical Knowledge, 1850s-1930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ergen, 2013), pp. 147-149. 노르웨이 출신으로 매사추세츠에 정착한 페데르 안데르손은 이러한 기사에 반박하는 글을 보스턴의 신문사에 보냈다. *Boston Atlas* (1853년 2월 26), 재간행은 *Living Age*, 37 (1853), pp. 33-34. https://www.naha.stolaf.edu/pubs/nas/volume26/vol26_2.htm#32.

35) Mary Laine, "How Minnesotans Handled Leprosy around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MinnPost* (November 5, 2018). <https://www.minnpost.com/mnopedia/2018/11/how-minnesotans-handle-leprosy-around-the-turn-of-the-20th-century/>. (검색일: 9월 22일).

36) 미네소타의 의사 휴잇(Hewitt)의 편지 내용. 다음에서 재인용. Walter L. Washburn, "Leprosy among Scandinavian Settlers in the Upper Mississippi Valley, 1864-1932",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24-2(1950), pp. 130-131.

37) 1879년부터 1883년까지 국립 보건 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가 잠시나마 연방정부의 보건 정책을 뒷받침했지만, 1891년 연방이민국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민자의 입국 통제에 있어 연방정부의 책임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38) 나병의 임상적 특징이 알려진 것은 1840년대로, 노르웨이 출신인 다니엘센(Daniellssen)과 백(Boeck)의 연구 덕분이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결핵나병(Tuberculoid leprosy)과 나종나병(lepromatous 또는 anaesthetic leprosy)이 구별되었다. Gussow and Tracy, "Stigma and the Leprosy Phenomenon", p. 432.

피부병과 쉽게 구별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³⁹⁾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환자를 신속하게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주정부가 이들의 보호와 격리를 계속해서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주 단위의 방침은 특정 지역에서 장기적인 나병 연구를 가능케 했다.

유럽인에게 미국은 여전히 신세계였으며, 구세계의 질병인 나병은 미국에서 흔치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나병의 원인과 임상적 특징을 밝혀낼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노르웨이인을 비롯해 스칸디나비아인이 대거 이주했던 중서부가 대표적인 연구 장소가 되었다. 19세기 후반 노르웨이의 의사 세 명이 미국을 방문해 나병을 연구했다. 이 셋은 나병의 발병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방문한 홀름뵈(Holmboe)는 환경에 따른 자연발생설을 신봉했고, 뒤를 이은 벡(Boeck)은 나병이 유전된다고 보았다. 반면 한센은 감염이론을 추구했다. 첫째로 홀름뵈는 1860년대에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위스컨신의 노르웨이 이민자 거주지를 여행하며 28명의 나환자를 조사했다. 그는 미국에서 나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미국에서 출생한 노르웨이인 중에는 나병 발병 사례가 없으며 나병을 앓는 성인 노르웨이 이민자 중에도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드물다는 이유였다. 홀름뵈에 따르면, 미국의 기후는 노르웨이만큼 척박하지 않고, 미국식 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이 좋아져 나병의 발병이 저해되었다.⁴⁰⁾ 따라서 나환자의 격리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벡은 홀름뵈보다 몇 년 뒤인 1869년에 미국에 도착했다. 그는 18명의 나환자를 조사했는데, 미국에 도착한 이후 나병 증세를 보인 9명 중 8명이 가족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39)Hansen, "Leprosy in Norway and America", p. 503. 한편, 나병을 매독의 한 형태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40)반대로 위시번은 노르웨이 이민자이자 미네소타에 정착한 의사인 그린볼(Grönvold)의 연구를 들어, 미네소타의 연교차(화씨 2도에서 화씨 73도)가 나환자 영양소가 있던 노르웨이의 베르겐(화씨 34도에서 화씨 57도)보다 훨씬 컸고, 미국식 식사를 하면서 노르웨이 이민자가 이전보다 키는 컸을지 모르나 더 병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기후나 음식 면에서 미네소타에 나병의 효과를 완화시킬 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위시번은 미네소타의 척박한 기후가 나균의 진행을 늦추거나, 나병의 발생과 연관되는 다른 기제를 완화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Washburn, "Leprosy", p. 127, 146.

나병의 유전성을 확신했다. 그는 미국의 환경이 나병 증세를 완화시키지 않으며, 나병에 걸릴 기질을 타고난 이라면 미국에서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위생적인 생활 방식이 도움은 되겠지만 유전되는 이상 나병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격리는 유전적 요인이 대를 이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이었다. 이들의 뒤를 이어 1887년에는 한센이 미국에서 나병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당시 생존해있던 나환자는 13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센은 미국에 정착한 노르웨이 출신 의사의 도움으로 총 160건의 나환자 사례를 조사할 수 있었다. 한센의 연구는 노르웨이 이민자 가운데 나병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중 나환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혀 나병의 유전설을 부인했다. 그에 따르면 기후의 차이도 나병 발병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않았다. 미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이미 나병에 걸린 사람의 상태가 나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한센은 미국에 도착한 후, 노르웨이 이민자가 더 청결한 환경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보다 넓은 공간을 누렸기 때문에 나병의 전염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⁴¹⁾

이 중 한센의 연구는 노르웨이어로 출판되었음에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1889년 『뉴욕 타임스』는 「우리가 나병에 대해 아는 것(What We Know of Leprosy)」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동안 알려진 나병의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았다. 1) 유전 때문에, 2) 조리가 잘 되지 않았거나 썩은 생선을 주식으로 해서, 3) 전염으로 나병이 발병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원인인 유전은 한센이 중서부에 정착한 노르웨이 태생 나환자를 조사함에 따라 힘을 잃었다. 이들의 후손 중 누구도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 유전설을 반박하는 결과로 주목을 받았다.⁴²⁾ 둘째, 생선에 대한 논쟁은 북유럽인의 나병 발병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선을 주식으로 하는 이들 가운데 나병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생선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인도나 중국의 특정 지역에도 나환자가 많고, 생선을 주식으로 한다 해서

41) 이 문단은 Lie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H. P. Lie, "Norwegian Lepers in the United States: The Investigations of Holmboe, Boeck and Hansens",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6(1938).

42) 이후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린 노르웨이 혈통의 환자가 발견되었다. 이 환자의 가족 누구도 나병에 걸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 나병에 걸리지는 않는다고 기사는 설명했다. 셋째, 나병이 전염된다는 주장은 아직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한센이 발견한 균이 거의 모든 나환자에게서 검출되었기 때문에 나병을 전염성 있는 “바실루스” 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⁴³⁾ 같은 칼럼이 미국 중서부와 서부에도 출간되어 대중에게 나병에 대한 지식을 전파했다.

나균이 발견된 후에도 나병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생선 이론 역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뉴욕의 의사인 앨버트 애쉬미드(Ashmead)⁴⁴⁾는 대표적인 생선 이론 지지자로, 나환자의 이민 금지를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이민자는 물론 노르웨이 정부까지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19세기 후반 노르웨이에서 나환자 수가 줄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자, 애쉬미드는 노르웨이 정부가 나환자를 미국으로 “수출”해서라고 비난했다.⁴⁵⁾ 이에 대해 한센은 수년간의 격리 정책이 성과를 일궈낸 것이며, 나병의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이민 금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⁴⁶⁾ 노르웨이 정부는 1880년대에 나환자의 격리를 의무화했고, 그 결과 1890년대가 되면 나병 발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⁴⁷⁾ 노르웨이의 성공적인 나병 통제는 미국 사회에도 전해졌으나, 애쉬미드의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노르웨이인에 대한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노르웨이 이민자들은 정착 초기부터 나병의 스티그마를

43) Phineas S. Abraham, “What We Know of Leprosy”, *New York Times* (July 21, 1889). *Fortnightly Review*에 출판된 내용을 재출간. (1885년 “Leprosy and Its Causes”)

44) 애쉬미드는 아시아인에 대해 인종차별적 태도를 취했던 인물로, 한 때 일본 도쿄 병원의 외국 의학소장으로 있었다. 그는 노르웨이 이민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한센과 열띤 논쟁을 벌였다. 애쉬미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Pandya, “First International Leprosy Conference”. 생선 이론의 지지자 중에는 영국의 저명한 의사인 조나선 허친슨도 있었다.

45) “Plan for National Colony of Lepers”, *New York Times* (December 16, 1901); Gussow and Tracy, “Stigma and the Leprosy Phenomenon”, p. 442. Albert S. Ashmead, “Did Norway Send as an Official Representative a Leper to America?”, *St. Louis Medical Gazette*, no. 2(1898-99).

46) Hansen, *Saint Paul Medical Journal*, p. 243.

47) L. M. Vetlesen, “Leprosy in Norway”, *The Daily Bulletin* (Dec. 13, 1892).

이해하고 있었고, 이민자의 긍지를 갖고 미국 사회에 동화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 노르웨이 출신인 페데르 안데르손(Anderson)의 자서전이다.⁴⁸⁾ 약방에서 도제로 일했던 안데르손은 1830년 19세의 나이로 미국에 도착했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영어를 배운 뒤 매사추세츠주의 로웰에 정착하여 사업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노르웨이인이 바람직한 이민자로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다. 또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절제하고, 정직하며, 근면해야” 한다고 믿었고, 어디에 있든 모국을 대표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바르게 행동할 것을 기대했다. 따라서 1850년대 미국의 노르웨이인에게서 나병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처하려면 노르웨이 이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안데르손은 즉각 반박하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나환자와 접촉했지만 나병에 걸리지 않았고, 경험에 빚대어 볼 때 유전병인 나병은 한 가족에서 다음 세대로 바로 유전되는 게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뛴다고 설명했다.⁴⁹⁾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이민자도 비슷한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일례로 1853년 위스컨신주의 노르웨이 이민자들이 『밀워키 센티널』에 보낸 편지를 들 수 있다. 이 편지는 나병이 생선을 주식으로 하는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며 전염되지 않는 유전적 질병이라는, 나병에 대한 당시 이해에 바탕했다. 본인을 ‘노르웨이인’이라고만 밝힌 대표 저자는 노르웨이에서도 오직 베르겐(Bergen) 근처에만 나병 사례가 있을 뿐, 나병이 만연하다는 주장이 이주를 막으려는 노르웨이 정부의 계산에서 나왔다고 분노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민 서류를 갖추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갖은 서류 비용을 뜯어냈으며, 이번에는 환자 수가 적고 위험하지도 않은 나병을 빌미로 건강 증명서 발급 비용까지 착취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저자는 노르웨이에 나병이 만연하다는 소문도 미국 정부를 설득해 자국민의 이민을 방해하려는 노르웨이 당국의 계획으로 보았다.⁵⁰⁾ 이 편지는 초기 노르웨이

48) https://www.naha.stolaf.edu/pubs/nas/volume26/vol26_2.htm.

49) https://www.naha.stolaf.edu/pubs/nas/volume26/vol26_2.htm#32. 안데르손은 미국의 더 나은 음식과 더 온화한 기후로 인해 (중)서부에서 나병이 완전히 뿌리뽑힐 것이라고 보았다.

50) “Leprosy in Norway”, *New York Daily Times* (January 21, 1853), p. 7.

이민자를 억압적인 정부를 떠나 온,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건강하며 사리에 밝은 사람들로 그려내고자 했으며, 보통의 이민자와 나환자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IV. 노르웨이 출신 나환자와 미국인 되기

미국의 초기 나병 연구와 정책에 있어서 노르웨이인 나환자의 존재 부각은 당시 북유럽의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이들은 항상 백인의 지위를 누렸지만, 미국 사회에 편입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18세기에 벤저민 프랭클린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독일인과 함께 스웨덴인을 백인에서 제외하고, 영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앵글로-색슨만이 진정한 백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⁵¹⁾ 프랭클린의 주장은 유럽인 사이의 인종 차이를 강조했다기 보다는 미국적 삶에 동화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었다.⁵²⁾ 안데르손의 예가 보여주듯 이민과 동시에 유럽의 이민자들은 앵글로 색슨으로 대표되는 미국적 이상을 체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미국 사회의 규율을 따르고자 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이민자는 남북전쟁 이후 미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청결함의 추구를 동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으며, 카톨릭이 아닌 프로테스탄트라는 점을 강조하여 앵글로 색슨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여타 이민자 집단과 거리를 둬으로써 문명화된 미국 사회에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었다.⁵³⁾

From the *Milwaukee (Wis) Sentinel*. 이 편지는 종교 관계자나 정부 관료를 비롯한 노르웨이 당국이 가난한 노르웨이인을 착취하기 위해 이들의 이민을 막았다고 설명한다.

51) Matthew Yglesias, "Swarthy Germans", *The Atlantic* (February 4, 2008)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08/02/swarthy-germans/48324/>. (검색일: 2020년 8월 3일). 당시 노르웨이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정치적 영향 밑에 있었으므로, 프랭클린의 '스웨덴인'에 노르웨이를 비롯한 다른 스칸디나비아인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52) Jackson, *Scandinavians*, p. 8.

53) *Ibid.*, p. 7. 독일이나 아일랜드 이민자와 달리 금주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의 동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840년대에서 18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는 다른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스칸디나비아인을 “가난, 지저분한 생활환경, 범죄, 동화하지 않으려는 속성” 등과 연결지었다.⁵⁴⁾ 게다가 나병처럼 오래전부터 배척당했거나 이민자와 연계된 질병은 아무리 잠깐이라고 해도 새로운 세계에서 이들의 지위를 위협하기 마련이었다. 실제로 19세기 중반 미국의 노르웨이인 중에 나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주요 거주지였던 미네소타 동부와 위스콘신 북서부는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북서부 인디언 거주지와 더불어 미국 내 나병의 근원지로 알려졌다. 중국인에 대한 차별만큼은 아니었다 해도 노르웨이 이민자 또한 나병과 연계되어 비난받았고 생활환경과 방식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흄름뵈, 벅, 그리고 한센의 연구는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 중서부에서 노르웨이 출신 나환자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1890~1900년대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나병 사례가 보도되어 다시금 노르웨이 이민자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무엇보다 노르웨이인이 청결하지 못해 나병을 전파한다는 생각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노르웨이인의 불결함은 19세기 중반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미국의 시인이자 여행작가 베이야드 테일러(Taylor)는 1858년에 출간된 『북부 여행: 스웨덴, 라플란드, 노르웨이의 여름과 겨울 풍경』에서 당시 노르웨이의 나병과 개인 위생 부족을 논하며 불결하고 더러운 생활환경을 나병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⁵⁵⁾ 19세기 말까지도 노르웨이인의 위생문제는 나병 전문가의 입에 오르내렸다. 노르웨이인의 이민 통제를 주장했던 뉴욕의 의사 애쉬미드는 영국의 나병 권위자 르로어(Leloir)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르웨이의 농부는 정말로 더럽다. 대부분은 절대 목욕을 하지 않고, 얼굴과 손은 일주일에 한 번, 발은 일 년에 한 번 씻을 뿐이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에 몸이 닿는 법이 없다. 대부분 울로 된 옷을 입는데 잠을 잘 때도 벗지 않는다. 옷은 절대 세탁하지 않고 걸레가

54) *Ibid.*, p. 20.

55) Bayard Taylor, *Northern Travel: Summer and Winter Pictures of Sweden, Lapland and Norway* (London: Sampson Low, Son, and Co., 1858), pp. 295-96.

될 때까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다.”⁵⁶⁾ 나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청결함이 필수적이었으므로, 이를 지킬 수 없는 노르웨이인의 이민은 저지되어야 했다.

그러나 가난으로 점철된 이민자의 초기 정착 환경을 무시하고 청결함을 마치 미국적 삶의 정수인양 찬양하는 것은 동화에 대한 압력은 물론, 이민자와 미국인 간에 쉽게 넘을 수 없는 차별의 벽이 있음을 시사했다.⁵⁷⁾ 애쉬미드의 주장에 대해, 한센은 노르웨이인도 미국에서는 청결함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병이 전염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확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노르웨이 농부가 미국에서 처음 배우는 것은 씻는 것으로, 미국 관습의 좋은 점을 보여준다.”는 주장이었다.⁵⁸⁾ 청결함의 학습과 이에 따른 나병의 소멸은 노르웨이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일부가 되어감을 뜻했다. 이들을 모범 사례로 본 글도 등장했다. 1889년 『토요일 리뷰』에 실린 「나병의 확산(The Spread of Leprosy)」이라는 글에서, 저자는 나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부유해져 “엄청난 빈곤, 음식 부족, 불충분한 생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의 노르웨이 이민자를 예로 삼아 이러한 방법의 효과를 증명하고자 했다. 미국 이민자 사이에서 나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들이 “더 좋고 더 많은 음식을 먹으며 덜 더러운 장소에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⁵⁹⁾ 이처럼 청결함은 깨끗하지 못한(unclean) 나병을 없앨 중요한 도구이자 동화의 상징이었다. “청결함은 심오한 문화적, 사회적 중요성을 지녔다. 이는 동화와 승인의 과정에서 초기 단계를 뜻했다.”⁶⁰⁾ 노르웨이 이민자

56) Burnside Foster, ed., “Nowegian and International Leprosy Law”, *Saint Paul Medical Journal*, vol. 1(1899), p. 300에서 재인용.

57) 위시번은 블레겐(Bleggen)의 연구를 들어, 위생이 나병을 물리치는 데 가장 중요했다는 데 의문을 표했다. 초기 이민자의 생활환경은 노르웨이보다 비참할 정도였지만 나병이 쉽게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Washburn, “Leprosy”, p. 147. 미국으로 이주한 멕시코인보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시민의 건강 상태가 더 좋다는 멕시코 패러독스(Mexican Paradox)와도 연결지어볼 만한 문제이다.

58) G. A. Hansen, “Leprosy in Norway and America”, *Correspondence, JAMA*, 30-9(1898), p. 503.

59) “The Spread of Leprosy”, *The Saturday Review of Politics, Literature, Science and Arts* (June 15, 1889).

60) Suellen Hoy, *Chasing Dirt: The American Pursuit of Cleanliness* (New

역시 나병과 연관되지 않은 경우에도 청결함을 받아들이고, 이를 덴마크나 아이슬란드의 이민자는 물론 모국의 시민과도 차별화할 수단으로 여겼다. 해당 시기에 미네소타에서 나병 사례가 증가하긴 했지만, 증가의 원인은 더 이상 이민자 사회의 불결함이 아니었다. 역사학자 윌터 워시번(Washburn)에 따르면, 첫째, 주정부가 의심 가는 사례를 더 꼼꼼하게 조사했고, 둘째, 이민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었다.⁶¹⁾ 이민자가 많아지니 이에 비례해 질병사례가 더 발생하기 마련이었다는 것이다.

이민자와 나병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미국 전역에 알리고자 한 인물은 미네소타의 H. M. 브랙켄(Bracken) 박사로, 1898년에 출판된 그의 짧은 글은 한센이 발표한 논문의 후속 연구라 할 수 있다. 브랙켄은 1890년 이후 미네소타 주정부 보건 위원회에 새로 보고된 나환자를 중심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나병 정보를 제공했다. 그동안 미네소타에서 보고된 나환자는 총 51명이었는데, 1890년 이후에 34명의 사례가 새로 보고되었다. 이 중 나병이 발병한 자녀는 한 명도 없었고, 배우자에게 전염된 사례도 나타나지 않았다.⁶²⁾ 브랙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가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가족력 확인을 꼭 해야 하며, 나환자의 가족에게 입국 허가를 내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네소타의 기후가 나병의 전파를 막았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의 유입이 없다면 격리가 필수적이지 않지만, 여기서도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 가정에서는 안전을 위해 격리가 요구되었다. 이민자 대부분이 미국의 이상적인 생활환경을 받아들였으나, 생활 습관이 좋지 않고 청결하지 않은 이들이 여전히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나병의 스티그마를 지우려는 노력도 엿보였다. 브랙켄은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나환자가 다 노르웨이인은 아니며, 미국에서 발견되는 모든 나환자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은 아니라는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 120. 소비 혁명을 통한 청결함의 강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ackson, *Scandinavians*, pp. 57-58; Carl A. Zimring, *Clean and White: A History of Environmental Racism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5).

61) Washburn, "Leprosy", p. 132.

62) H. M. Bracken, "Leprosy in Minnesota", *Public Health Papers and Reports*, 24(1898), p. 186. 브랙켄은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이자 미네소타주 보건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사실을 덧붙였다. 이미 미국 전역에 나환자가 있지만, 미네소타주만큼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나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보유한 지역이 적어 아직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⁶³⁾

브랙켄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라도 이민자이든 아니든 나환자가 발생한다면 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격리 시설이라 해도 감옥과 별다를 바 없으므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나환자 요양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내에 두 개의 요양소 설립을 주장했다. 하나는 열대 지방에 적응하기 힘들 스칸디나비아나 아이슬란드 출신을 위해, 다른 하나는 미네소타에서 도저히 지낼 수 없을 아열대 지역의 나환자를 위해서였다. 브랙켄은 루이지애나주, 인도, 키웨스트, 하와이 등에서 나환자가 어떤 식의 격리 및 보호를 받는지 공유하여, 앞으로 연방정부가 세울 나환자 요양소가 그저 대피처가 아니라 집이자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⁶⁴⁾ 주목할 점은 출신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나환자를 분류하고, 이들의 나병을 각기 다른 종류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사회의 인종적 이해관계, 기후, 지역, 질병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나병이라는 질병이 정의되었음을 의미했다.⁶⁵⁾

청결함의 강조 외에도,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의 나병이 전국적인 논란거리로 재부상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타인종의 나병이 주목을 받으며 대비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1865년에 하와이 왕국은 나병 확산 방지법(An Act to Prevent the Spread of Leprosy)을 통과했고, 몰로카이섬에 나환자를 위한 격리 시설을 지었다.⁶⁶⁾ 환자 대부분이 하와이 원주민이었지만, 나병을 처음 전파한 것이 중국인으로 알려지자 당시 반이민 정서와 맞물려 중국인 노동자에게 나병

63) *Ibid.*, p. 190.

64) Bracken, "Suggestions as to Leprosaria" (part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serial set. 4239) (1901-02).

65) Moran, *Colonizing Leprosy*, p. 28.

66) Mark Lambert, "The Trump Administration, Immigration, and the Instrumentalization of Leprosy", *Religion & Culture Forum* (September 6, 2017) <https://voices.uchicago.edu/religionculture/2017/09/06/the-trump-administration-immigration-and-the-instrumentalization-of-leprosy/>. (검색일: 2020년 7월 24일).

확산의 책임을 묻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⁶⁷⁾ 미네소타에서 백과 한센이 노르웨이 이민자의 나병을 조사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보건 위원회는 1870~1880년대에 50여 명에 달하는 중국인 나환자를 추방했다.⁶⁸⁾ 1898년 하와이의 합병 역시 나병 확산에 대한 공포에 불을 지폈다. 중국인 나환자에 대한 공포는 하와이에서 시작해 캘리포니아로, 그리고 미 전역으로 퍼졌으며,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의 사례와 점차 대비되었다. 1888년 나병 전문가인 무명의 시카고 의사는 나병의 두 종류—결핵나병과 나종나병—를 설명한 후, 루이지애나로 영토가 확장된 이래 미국에서는 나병이 항상 있었고, “중국인, 스칸디나비아인과 샌드위치 섬(하와이) 주민”이 나병의 주요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격리가 나병 통제에 최고의 효과를 보였으므로, 의사는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특정 지역에서 출발한 모든 스칸디나비아인을 미국에 도착 시 주의 깊게 검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시에, 그는 이들을 중국인과 비교하며, “미국과 매우 유사한 제도와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훌륭한 미국 시민이 되었다.”고 차이를 강조했다. 의사는 미국의 스칸디나비아 혈통이 앵글로 색슨과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동화가 놀랍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법을 잘 따르는 스칸디나비아인은 통제를 기꺼이 따르겠으나 아편이나 피우는 몽골리언[중국인 지칭]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 이들로부터 위험이 야기될 것이다.”⁶⁹⁾ 같은 질병을 앓아도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나환자는 중국인 환자와 분명히 달랐다. 미국의 이상을 체화한 노르웨이인의 동화가 이들로부터 나병의 스티그마를 지워내기 시작했다면, 중국인은 동화 가능성이 처음부터 희박하기도 했지만, 동화한다 해도 미 전역을 “

67) 하와이에서는 나병이 ‘중국인 병’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노르웨이인에게 책임을 묻는 연구도 있다. 역사학자인 쉘던 왓츠(Watts)는 하와이 노동 이민자로 먼저 모집된 것이 노르웨이 이민자였기 때문에, 중국인 외에도 이들이 나병을 전파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Moran, *Colonizing Leprosy*, p. 225n13.

68) Shah, *Contagious Divides*, p. 99.

69) “Facts about Leprosy”, *Placer Herald* (November 10, 1888). 기사의 부제는 ‘시카고 의사가 질병에 대한 흥미로운 개요를 제공한다’로 의사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다.

나환자의 나라”로 바꿀 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⁷⁰⁾

문학비평가인 새라 에디(Sara Eddy)는 19세기 미국 대평원에 정착한 노르웨이 이민자의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이 북서부 이민자의 경우만큼 쉽게 자리 잡지는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비백인 타자의 부재를 들었다. 흑인이나 아시아인이 백인과 함께 공존했던 동북부와 달리, 중서부에서는 이들의 수가 적어 대비될 대상이 없었고, 그 결과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⁷¹⁾ 에디의 주장은 나병의 이해에도 적용될 수 있다. 19세기 중반에는 완전한 백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서부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에게서 나병의 위협이 지워지지 않았으나, 19세기 말 새로 유입된 이민자와 대비되면서 이들의 지위에도 변화가 생겼다. 몰로카이의 나환자 요양소 소식이 미 전역에 알려지고, 미 서부,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등에서 중국인 나환자의 위협이 부각되며, 식민지의 지식을 통해 열대 지방에서 나병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노르웨이인 나환자의 위협은 점차 약해졌다. 새로운 생활환경 속에서 나환자의 수가 줄어들고, 전세계적으로 나병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 것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겠으나, 노르웨이 이민자가 더 확실히 미국 주류 사회에 편입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게다가 19세기 말이 되면 노르웨이는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나병 통제에 성공한 반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전히 나병이 널리 퍼져 있었고,⁷²⁾ 1882년에 도입된 일련의 중국인 배제법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이민자, 특히 병든 이들이 미국에 몰래 들어와 해악을 끼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전했다. 1902년에 발표된 미국 나병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는 미 중서부에 자리한 스칸디나비아 출신 나환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하와이, 서인도제도를 전염의 근원지로 지목했다.⁷³⁾ 15년 전 시카고 의사의 설명과 달리, 스칸디나비아는 더

70)Shah, *Contagious Divides*, p. 102.

71)Sara Eddy, ““Wheat and Potatoes: Reconstructing Whiteness in O. E. Rølvaag’s Immigrant Trilogy”, *MELUS*, 26-1(Spring 2001).

72)“The Storm Center of the World”, *The Saint Paul Globe* (November 30, 1901).

73)Moran, *Colonizing Leprosy*, p. 26.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총 278명의 나환자가 있었고, 이 중 72명이 격리 보호를 받았다. 278명 중 145명이 미국 출생, 120명은 외국 출생으로, 스칸디나비아 출신이 41명(노

이상 나병의 위험지역이 아니었다. 하와이와 필리핀의 합병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열망이 실행된 후, 식민 제국의 의료 지식을 통해 나병이 ‘황인’과 ‘흑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열대병이자 비문명의 병으로 재규정되면서, 스칸디나비아 이민자들이 겪었던 나병과 하와이, 필리핀, 인도 등지에 퍼져있던 나병이 각기 다른 치료법을 요하는 별개의 질병으로 인식되었다는 점 또한 이들로부터 나병의 스티그마를 지우는 데 힘을 발휘했다.⁷⁴⁾ 그렇게 노르웨이 이민자들은 새로운 미국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V. 이민 제한과 루이지애나주 카빌의 국립 나병원 설립

1890년대에는 나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나병의 오랜 역사는 물론이고, 제국주의에 힘입은 전지구적 교류가 나병을 둘러싼 지식 공유와 교환을 도왔다.⁷⁵⁾ 1897년에 베를린에서 개최된 첫 번째 국제 나병 학회가 이러한 흐름을 대표했다. 이 시기가 되면 나병의 전염성이 잘 알려졌지만, 나균 외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학회에서도 격리 방안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이민의 증가를

르웨이 22명, 아이슬란드 11명, 스웨덴 8명), 중국인이 20명, 1명이 일본인이었다. 독일 출신은 12명이었고, 22명이 스페인령 중남미에서 왔다. 스칸디나비아 이민자가 외국 출생 나환자의 30퍼센트 이상(노르웨이 나환자만 따져도 20퍼센트 가까이)을 차지했지만, 보고서는 이들보다 중국이나 중남미 출신의 위험을 강조했다. 하와이 사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57th Congress, 1st sess. Senate Document No. 269. Letter from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ransmitting Letter from the Surgeon-General of the Marine Hospital Service Presenting a Report Relating to the Origin and Prevalence of Leprosy in the United States, March 24, 1902.

74) Moran, *Colonizing Leprosy*, p. 28. 또한 1902년의 보고서는 추운 지역에서는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결핵나병, 더운 지역에서는 진단이 더 까다롭고 신경까지 영향을 미치며 전염성이 더 강한 나중나병이 많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결핵나병과 나중나병의 발병률은 두 지역에서 비슷했다.

75) 당시 출판된 연구나 신문기사는 유럽(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식민지와 여타 비유럽 국가에서 나병이 어느 정도 전파되었는지 자세하게 다뤘는데, 장차 나병이 유럽이나 미국에 미칠 영향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을 참조. Agnes Lambert, "Leprosy: Present and Past", *The Nineteenth Century*, 16(1884).

고려할 때, 외부에서 유입된 질병인 나병을 국경에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있었다.⁷⁶⁾ 베를린 학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 전역의 신문에 실려 일반 대중에게도 나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나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학회의 논의는 탁상공론에 가까웠다.

국제 학회의 결론과 관계없이 미국은 이미 독자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었다. 나병 통제에 있어서는 주정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 제한적인 이민정책을 바탕으로 연방정부가 우위를 차지했다. 19세기 말이 되면 연방정부 산하의 공중보건국(USPHS)이 국경에서의 질병 통제를 담당하여 입국하는 이민자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검사했고, 유럽이나 아시아의 항구에서도 출발 전 다양한 의료검사가 강제되었다. 나병 역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다. 1889년 미국 보건총감(Surgeon General)은 나병을 앓는 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을 국경에서 되돌려보낼 것이며, 입국한 지 3년 안에 나병이 발병한 이들은 추방한다는 법규를 세웠다.⁷⁷⁾ 문제는 나균을 가진 채 미국에 정착했다 한들 발병까지 십여 년 이상이 걸리곤 했으므로 당시 3년이나 5년이었던 공소시효를 넘긴다면 추방도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일한 대안은 나환자를 연방정부 산하 기관에서 격리하여 전염 위험을 막는 것이었다. 따라서 1894년 미국 공중보건국의 전신인 해군병원국(Marine Hospital Service)은 격리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발표해 황열병, 콜레라 환자 외에도 나환자를 격리대상으로 삼았다.⁷⁸⁾ 미 국내는 물론이고 새로 입국하는 나환자 수도 많지 않았지만, 미국 공중보건 및 해군병원국(USPHMHS)⁷⁹⁾은 나병을 별도의 등급으로 분류해 이민자를 통제했다. 1903년에 출간된 『이민자 의료검사 지침서

76) Vollset, "Globalizing Leprosy", pp. 171-172.

77) Zachary Gussow, *Leprosy, Racism, and Public Health: Social Policy in Chronic Disease Control* (Boulder: Westview Press, 1989), p. 130. 1900년대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미국에서 특정 기간 머물러 거주지를 성립한 사람이라면 연방 및 주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을 채우기 전에 발병 시 이민 전부터 해당 질병을 앓았다는 가정 하에 추방의 대상이 되었다.

78) "Revised Quarantine Rules", *The New York Times* (April 30, 1894).

79) 1798년에서 1902년까지는 해군병원국(Marine Hospital Service), 1902년부터 12년까지는 U.S. Public Health and Marine Hospital Service였으며, 1912년에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Service)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Book of Instructions for the Medical Inspection of Immigrants)』는 국경에서 입국 금지가 가능한 질병을 크게 A와 B 클래스로 분류했는데, 나병은 위험하고 전염되는 질병인 트라코마와 폐결핵, 혐오스러운(loathsome) 질병인 황선(黃癬), 매독, 임질과 더불어 A클래스에 속했다. 나병이 매독이나 임질 같은 성병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나병의 역사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미국 사회가 이 질병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여 통제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국내의 나환자 관리도 문제가 되었다. 이미 1891년에 해군병원국의 윌터 와이먼은 미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에 나환자가 발생할 시 연방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주정부가 특별 병원을 세우기 어렵고, 주시민의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나환자의 발견과 추적에 소극적이라 질병의 전파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⁸⁰⁾ 곧 와이먼의 제안은 현실이 되었다. 2,500여 명의 나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와이가 미국에 합병되면서 연방정부는 비단 국경에서만 아니라 국내 나병 통제에도 박차를 가했다. 국회는 1899년 나병 조사 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여 세 명의 해군병원국 의사로 하여금 나병의 원인과 전파 상황, 방지 법안 등을 조사하도록 했고, 1901년에는 베를린 학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미 전역에 적용될 나병법 논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 부지에 나환자를 위한 건물을 설립하여 “이민자와 나환자가 있는 가족 출신”을 격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1901년 이래로 해군병원국이 나병법의 실행을 맡게 되었으나 연방정부의 정책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⁸¹⁾ 1904년부터는 나환자 격리 시설의 설립 장소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나환자의 수가 적으므로 연방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연방정부가 나서서 특정 지역에 연방 병원이나 요양소를 설립한다면 해당 주가 원치 않는 환자를 떠맡는 등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공존했다. 나환자 요양소 설립에 동의할 주는 없을 것이며, 환자 수가 적어 주정부 단위로

80) *Annual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of the Marine Hospit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Fiscal Year 1891*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91), pp. 15-16.

81) “Plan for National Colony of Lepers”, *New York Times* (December 16, 1901).

치료 및 보호가 가능한데 굳이 연방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나환자 요양소 설립 반대자들을 거들었다. 무엇보다도 나병이 열대병이자 비문명의 병이라는 이미지가 미국 내 국립 나환자 요양소 설립을 막았다.⁸²⁾

입장의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민자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지에서 돌아온 참전 미국인 중에도 나환자가 발생하자 미국 사회는 점차 연방정부의 나병원 설립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⁸³⁾ 1917년에는 루이지애나주 카빌의 나환자 요양소가 국립 나병원으로 재정비되어 연방정부 산하 기관이 되었다. 하와이의 몰로카이를 제외하고 미대륙 내에서 유일하게 나환자를 수용했던 연방정부 기관으로, 그 때까지도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격리 및 감금을 맡았다.⁸⁴⁾ 나병이 실로 외부인의 병이자 열대병이었다면 환자 대부분이 이민자 출신이나 비백인이어야 했겠지만, 절반 이상이 백인이었고 흑인이나 아시아계 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⁸⁵⁾ 카빌 국립 나병원은 1960년대까지 나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담당했다.⁸⁶⁾

82) Moran, *Colonizing Leprosy*, pp. 37-38.

83) 1926년의 Public Health Reports에서 공중보건국 의사인 데니(Denney)는 미국에서 나병이 1) 초기 정착민, 2) 이민자, 3) 나병 창궐 지역에 파병되었다 돌아온 군인에 의해 전파되었다고 설명했다. O. E. Denney, "The Leprosy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Reports*, 41-20(May 14, 1926), p. 923.

84) *Ibid.*, p. 925. 장소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아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서야 공식 운영이 시작되었다.

85) Moran, *Colonizing Leprosy*, pp. 160-61. 1927년의 칼럼에서 에번스 박사는 환자 중 1/3 이상(259명 중 95명)이 외국 출생이었고, 2/3가 참전군인이었다고 설명했다. "How to Keep Well", *The Washington Post* (January 24, 1927). 1922년에서 1950년까지 입원 환자 1512명 중, 백인은 877명(58 퍼센트), 멕시코인 303명(20퍼센트), 흑인 169명(11.1퍼센트), 중국인과 일본인 79명(5.2퍼센트), 필리핀인이 79명(5.2퍼센트)이었다. 이 통계만 가지고는 미국 출생과 외국 출생을 구별할 수 없다. 백인 중에도 이민자가 있었을 것이고, 흑인 대부분은 미국 출생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Herman H. Gray and Huldah Bancroft, "Tuberculosis at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Hospital, Carville, Louisiana, 1922-1950",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20-4(1952), p. 468.

86) 1940년대에 설펜(sulfone) 제제가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지자 나환자의 격리를 정당화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나병원을 벗어나기 힘든 만성 환자도 있었기 때문에 1999년에야 카빌은 문을 닫았다. Cassandra White, "Déjà Vu: Leprosy and Immigration Discourse in the United States: Twenty-First Century", *Leprosy Review*, 81-1(2010), pp. 18-19.

VI. 결론

미 전역의 신문에 의료 칼럼을 실었던 W. A. 에번스 박사는 1924년의 한글에서 과거에는 노르웨이인이 미국에 나병을 가져왔으나 이들 사이에서 나병은 거의 제거되었고, 현재 미국 서부와 남부의 특정 주에 나병 사례가 많은 것은 “중국인과 멕시코인”의 이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⁸⁷⁾ 에번스의 글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노르웨이 이민자의 나병이 더 이상 현재의 위협이 아닌, 과거의 특수한 사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병의 그림자는 곧 다른 이민자 집단으로 옮겨갔다. 1900년대 초에는 남부의 이탈리아 이민자가 잠시 나병과 연계되었고,⁸⁸⁾ 필리핀인의 이민이 시작되자 이들의 ‘열대병’이 미국 사회에서 나병의 공포를 자아냈다. 이민자가 누구이든,⁸⁹⁾ 새로운 외부인,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이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의료 기술과 정보의 발달을 통해 나병의 스티그마가 사라졌을까? 아니다. 나병은 노르웨이인을 위시한 스칸디나비아 이민자를 거쳐, 중국인을 대표로 하는 ‘황인’으로, 이제는 라틴아메리카의 ‘불법’ 이민자로 옮겨갔다. 2017년 뉴저지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메넨데즈는 당시 보건장관 지명자인 톰 프라이스의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나병 발병을 야기했다고 보는지” 물었다. HIV/AIDS, 백신과 자폐증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메넨데즈는 나병과 이민자의 관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⁹⁰⁾ 2018년 10월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었던 데이비드 워드(Ward)가 폭스 뉴스에서 멕시코를 통과해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의 캐러밴 이민자들이 “나병, 천연두, 결핵” 같은 질병을

87) W. A. Evans, “How to Keep Well”,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17, 1924).

88) “Leprosy in the United States”, *The Washington Post* (August 18, 1901).

89) Shah, *Contagious Divides*; Anderson, *Colonial Pathologies*. 1902년부터 미국 정부는 필리핀의 콜리온 섬에 나환자촌을 짓기 시작했다.

90) Lambert, “Trump Administration”.

퍼뜨릴 것이라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는 증거가 전혀 없었다. 천연두는 전 세계에서 종식되었고, 캐러밴 이민자의 출신국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는 나병 사례가 없다. 결핵은 가능성이 있지만, 중남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흔한 병이다.⁹¹⁾ 그러나 메넨데즈의 질문이나 워드의 주장을 단순한 호기심, 또는 무지의 산물로 치부하기에는 왜 하필 나병인지 의문이 생긴다.

왜 나병인가? 1980년대 이래로 미국에서는 이민자, 특히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의 불법 이민자가 나병을 전파한다는 보도가 꾸준히 나왔다. 카산드라 화이트는 이러한 보도가 통계를 과장하거나 오용하여 ‘불법’ 이민자와 나병을 연결시켰다며, “이민자에게 낙인을 찍기 위해 나병을 이용한다.”고 보았다.⁹²⁾ 온라인 포털에는 이민자가 나병 사례의 85퍼센트를 차지한다는 검색 결과가 있지만, 실제 2004년에서 2013년까지의 누적 기록을 보면 미국 출생이 22.6퍼센트로, 80퍼센트 미만이 이민자 관련이며 이들 중 다수가 동남아시아의 난민이나 라틴아메리카 출신이다.⁹³⁾ 더구나 미국 출생이 아니라고 해서 이들이 다 불법 이민자나 비시민인 것도 아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미국 내에서 전염을 일으켰다는 증거 역시 불충분하며, 절대적인 수를 고려한들 미 전역에서 매년 150~200여명 정도의 새 환자가 발생할 뿐이다.⁹⁴⁾ 전염성이 낮고, 제때

91) Jason Le Miere, “Fox News Guest Claims Migrant Caravan Carries ‘Leprosy,’ Will ‘Infect Our People,’ Offers No Evidence”, *Newsweek* (October 29, 2018). <https://www.newsweek.com/fox-news-migrant-caravan-leprosy-1192605> (검색일: 2020년 8월 14일).

92) Cassandra White, “Leprosy and Stigma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Leprosy Review*, 82-2(2011), p. 151.

93) 2014년에는 175건의 새 환자 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109명(62퍼센트)이 미국 출생이 아니었다. “Hansen’s Disease Data & Statistics”, Health Resources & Services Administration, <https://www.hrsa.gov/sites/default/files/hansensdisease/pdfs/hansens2014report.pdf>. (검색일: 2020년 10월 5일). 시민권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없지만, 2014년 사례 중 62퍼센트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비시민이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미국에서 병에 노출된 것인지, 이민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94) “Hansen’s Disease Data & Statistics”, Health Resources & Services Administration, <https://www.hrsa.gov/hansens-disease/data-and-statistics.html>. (검색일: 2020년 10월 2일).

약물을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한데도 나환자가 미국에 입국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이민자는 이민 전 의료 검사에서 한센병 선별검진을 받아야 하며, 발병했다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입국을 금지당한다.⁹⁵⁾ 미국인의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입혀서라기 보다는, 나병이 시사하는 도덕적 결함의 문제와 비백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편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이트가 설명한 것처럼 나병에 대한 오늘날의 관심은 실질적 위협의 반영이라기 보다 경제적, 정치적 불안을 상쇄해 줄 외부의 희생양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⁹⁶⁾

나병의 존재가 많은 사람의 뇌리에서 희미해진 지금도 이민자는 나병의 환영을 불러일으킨다. ‘바람직하지 않은’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전혀 새롭지 않지만, 나병이 21세기에 다시금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나병의 끈질긴 생명력과 특정 집단을 억압할 수 있는 위력을 드러낸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민자나 외부인을 배척하는 태도를 익히 경험해왔다. 배척의 대상 역시 상황에 따라 중국인에서, 해외동포로, 불법 이민자로, 성적소수자로 계속 변화했다. 이제는 단지 질환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인종, 민족, 계층, 지역, 성별 등에 따라 누구나 배척과 격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민자와 질병의 관계가 단순히 이동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불안과 우려의 반영이 아닌지 성찰할 때이다.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jhyshin@gmail.com

95)“CDC Immigration Requirements: Technical Instructions for Hansen’s Disease (Leprosy) for Panel Physician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immigrantrefugeehealth/exams/ti/panel/technical-instructions/panel-physicians/hansens-disease.html>. (검색일: 2020년 10월 8일).

96)White, “Déjà Vu”, pp. 23-24.

주제어(Key words):

나병(leprosy), 스칸디나비아 이민자(Scandinavian immigrants),
노르웨이 이민자(Norwegian immigrants), 미국공중보건국(PHS), 미국
중서부(American Midwest)

(투고일: 2020.10.16, 심사일: 2020.11.11, 게재확정일: 2020.11.11)

<국문초록>

19세기 미국의 나병과 이민자: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이민자와 나병 경험

신 지 혜

본 글은 19세기 미국에서 나병이 인식된 과정을 통해 나병의 역사와 미국의 인종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나병의 스티그마가 백인 유럽인에서 비백인 이민자로 옮겨 간 역사는 스칸디나비아 출신, 특히 노르웨이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된 과정과 평행선을 이루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북유럽의 백인이라도 앵글로 색슨과 동일한 지위를 쉽게 얻을 수 없었으며, 질병을 옮기는 외부인으로서 정부의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출신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되고, 다른 이민자 집단의 나병이 부각되면서 나병의 스티그마는 점차 비백인 타자로 옮겨갔다. 물론 이 연구를 통해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의 고통을 확대 해석하거나, 이들의 배척의 역사가 여타 비백인 이민자나 소수 집단이 겪은 고난에 비견될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본 글에서는 19세기 중후반 미국 사회에서 나병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노르웨이 이민자와 나병이 어떤 식으로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나병의 통제가 어떻게 미국의 인종 관계를 반영하고 공중보건 법규와 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9세기 중반 미국에 도착한 노르웨이 이민자에 초점을 맞춰 이민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당시 미국 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이해와 이민자의 동화 과정을 재고하는 기회로 삼는다.

<Abstract>

Leprosy and Immigrants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Norwegian Immigrants in the American Midwest and Their Leprosy
Experiences

Shin Ji-Hye

This study discusses the history of leprosy and American race relations by examining the ways in which leprosy of Scandinavian immigrants, Norwegians in particular, was recognized and understood in the nineteenth-century United States. It argues that the process by which Norwegian immigrants came to shed the stigma of leprosy went hand in hand with their eventual assimilation and acquisition of American identity and the alleged rise of leprosy cases among other immigrant groups. Of course, this study has no intention of exaggerating the pain and suffering of Norwegian immigrants as they encountered leprosy and its stigma or arguing that the history of exclusion against them was comparable to the reality of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other non-white, non-European immigrants in the U.S. What this study attempts to do is to understand the changing American attitudes toward leprosy throughout the nineteenth century, investigate the discourse of leprosy among Scandinavian, in particular Norwegian immigrants, and examine the ways in which the disease reflected the American racial relations and influenced American immigration and public health policies. In addition, by focusing on Norwegian immigrants in the American Midwest, it expands the temporal and spatial scope of the U.S. immigration history and reexamines the process of assimilation for immigrants.

참 고 문 헌

1. 사료 및 기타 자료

Annual Reports of the Surgeon General of the Marine Hospit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Fiscal Year 1891, 1902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Senate Document No. 269. Letter from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ransmitting Letter from the Surgeon-General of the Marine Hospital Service Presenting a Report Relating to the Origin and Prevalence of Leprosy in the United States, March 24, 1902. 57th Cong. 1st sess.

Newsweek

New York Daily Times

New York Times

Placer Herald

Saint Paul Globe

Saturday Review of Politics, Literature, Science and Arts

Washington Post

「덕성여대 “에볼라 발병국 참가자 없다”...세계대회 개최」, 『뉴시스』 (2014년 8월 4일).

2. 단행본

낸시 톰스, 이춘입 역, 『세균의 복음: 1870~1930년 미국 공중보건의 역사』 (서울: 푸른역사, 2019).

제니퍼 라이트, 이규원 역,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서울:

- 산처럼, 2020).
- Anderson, Warwick, *Colonial Pathologies: American Tropical Medicine, Race, and Hygiene in the Philippin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 Diokno, Maria Serena I. ed., *Hidden Lives, Concealed Narratives: A History of Leprosy in the Philippines* (Manila: National Historical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2016).
- Foucault, Michel, *Discipline and Punish* (New York: Vintage, 1998).
- Gussow, Zachary, *Leprosy, Racism, and Public Health: Social Policy in Chronic Disease Control* (Boulder: Westview Press, 1989).
- Hoy, Suellen, *Chasing Dirt: The American Pursuit of Cleanlin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Inglis, Kerri A. Ma'i Lepera, *Disease and Displacement in Nineteenth-Century Hawai'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3).
- Jackson, Erika, *Scandinavians in Chicago: The Origins of White Privilege in Modern America*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8).
- Kraut, Alan,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 Moran, Michelle Therese, *Colonizing Leprosy: Imperialism and the Politics of Public Health in the United States*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 Semmingsen, Ingrid, and Einar Ingvald Haugen, *Norway to America: A History of the Migr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0).
- Shah, Nayan, *Contagious Divides: Epidemics and Race in San Francisco's Chinatow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 Zimring, Carl A., *Clean and White: A History of Environmental Racism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5).

3. 논문

Amundson, Ron, and Akira Oakaokalani Ruddle-Miyamoto, “A Wholesome Horror: The Stigmas of Leprosy in 19th Century Hawaii”,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30-3/4(2010). <https://dsq-sds.org/article/view/1270/1300>.

Aronson, Stanley M., “Racism and the Threat of Influenza”, *Medicine and Health Rhode Island*, 93-1(2010).

Ashmead, Albert S., “Did Norway Send as an Official Representative a Leper to America?”, *St. Louis Medical Gazette*, no. 2(1898-99).

Bracken, H. M., “Leprosy in Minnesota”, *Public Health Papers and Reports*, vol. 24(1898).

_____. “Suggestions as to Leprosaria” (part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serial set. 4239) (1901-02).

Caldwell, W. S., “Concerning the Norway Lepers”, *JAMA*, 30-15(1898).

Denney, O. E., “The Leprosy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Reports*, 41-20(May 14, 1926).

Eddy, Sara, ““Wheat and Potatoes: Reconstructing Whiteness in O. E. Rølvaag’s Immigrant Trilogy”, *MELUS*, 26-1(Spring 2001).

Gray, Herman H., and Huldah Bancroft, “Tuberculosis at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Hospital, Carville, Louisiana, 1922-1950”,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20-4(1952).

Gussow, Zachary, and George S. Tracy, “Stigma and the Leprosy Phenomenon: The Social History of a Disease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44-5(1970).

Hansen, G. A., “Leprosy in Norway and America,” *JAMA*, 30-9(1898).

Kula, Brittany, and Joan L. Robinson, “Mistreatment of Immigrants:

- The History of Leprosy in Canada”, *Leprosy Review*, 84(2013).
- Laine, Mary, “How Minnesotans Handled Leprosy around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MinnPost* (November 5, 2018). <https://www.minnpost.com/mnopedia/2018/11/how-minnesotans-handle-leprosy-around-the-turn-of-the-20th-century/>
- Lambert, Agnes. “Leprosy: Present and Past”, *The Nineteenth Century* 16(1884).
- Lambert, Mark, “The Trump Administration, Immigration, and the Instrumentalization of Leprosy”, *Religion&Culture Forum* (September 6, 2017). <https://voices.uchicago.edu/religionculture/2017/09/06/the-trump-administration-immigration-and-the-instrumentalization-of-leprosy/>
- Le Miere, Jason, “Fox News Guest Claims Migrant Caravan Carries ‘Leprosy,’ Will ‘Infect Our People,’ Offers No Evidence”, *Newsweek* (October 29, 2018). <https://www.newsweek.com/fox-news-migrant-caravan-leprosy-1192605>.
- Lie, H. P., “Norwegian Lepers in the United States: The Investigations of Holmboe, Boeck and Hansens”,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6(1938).
- Mackenzie, Morell, “The Dreadful Revival of Leprosy”, *The Nineteenth Century; a Monthly Review* (December 1889).
- Markel, Howard, ““The Eyes Have It”: Trachoma, the Perception of Disease,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and the American Jewish Immigration Experience, 1897–1924”,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73–3(2000).
- Pandya, Shubhada S., “The First International Leprosy Conference, Berlin, 1897: The Politics of Segregation”, *História, Ciências, Saúde-Manguinhos*, 10–1(2003). <https://doi.org/10.1590/S0104-59702003000400008>
- Roose, Robson, “Lepers and Leprosy in Norway”, *Fortnightly*

Review, 52(1889).

Saito, Hajime, and Janet E. Frantz, “History of Hansen’s Disease Contro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Japanese Journal of Leprosy*, 74(2005).

Vollset, Magnus, “Globalizing Leprosy: A Transnational History of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Medical Knowledge, 1850s–1930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ergen, 2013).

Washburn, Walter L., “Leprosy among Scandinavian Settlers in the Upper Mississippi Valley, 1864–1932”,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24–2(1950).

White, Cassandra, “Déjà Vu: Leprosy and Immigration Discourse in the United States: Twenty-First Century”, *Leprosy Review*, 81–1(2010).

_____, “Leprosy and Stigma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Leprosy Review*, 82–2(2011).